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들러가 직접 창안하고 이름 붙인 개인 심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야로, 개인의 사회적 감정을 중요시한다. 개인 심리학을 창안하기 전에 아들러는 프로이트 초기 학파의 일원이었다.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대한 서평을 쓴 것을 계기로 프로이트와 인연을 맺게 된다. 그의 학설에 흥미를 느낀 아들러는 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성(性) 충동을 인간 행동의 근원으로 파악하고 이를 모든 인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아들러가 반박하면서부터 아들러와 프로이트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프로이트와 아들러는 사회적 관계와 본능적 욕구 중 어떤 것이 인간의 성격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에서 차이를 보였다. 프로이트는 사회적 관계보다 본능적인 욕구가, 아들러는 본능적인 욕구보다 사회적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특히 아들러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성격이 형성되는 데에 열등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아들러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는 열등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열등감은 인간이 어느 정도 사회성을 갖게 된 이후에야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들러는 인간은 누구나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 즉 우월감을 갖고 싶어 한다고 여겼다. 열등감은 우월감을 갖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병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라고 생각하였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이들에게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보다 더 우월해 보이고 싶어 하는데, 이때 열등감은 열등감을 극복하여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가 구체화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열등감을 극복하여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의 움직임이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추진력인데, 아들러는 이를 ‘권력에의 의지’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들러는 우월감에 대한 욕구가 인간을 움직이는 최대의 동기라고 보았다.

프로이트가 신경증\*의 원인으로 성 충동을 중시한 데 반해서 아들러는 자아의 욕구나 성격 경향이 신경증을 낳는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프로이트는 성 충동이 억제된 과거의 경험이 어떤 사람을 규정한다고 여긴 반면, 아들러는 어떤 사람이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 그의 모습과 미래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프로이트가 과거의 경험이 ‘원인’이 되어 현재의 모습이 규정된다고 본 데 비해, 아들러는 어떠한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규정된다고 본 것이다. 아들러는 최초로 사회·문화적 요인을 신경증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당시 여성들이 지니고 있던 열등감이 남성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데에서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아들러는 인간은 누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자기 긍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만일 열등감에 대한 보상이 없거나 과도하면 인격의 왜곡이 생긴다고 하면서, 열등감에 대한 과다 보상의 결과로 뛰어난 업적, 반사회적 행동 등을 들었다. 열등감에 대한 과다 보상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예로는 뛰어난 업적을,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예로는 반사회적 행동을 든 것이다. 아들러는 열등감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생활 양식이 형성되어 가기 때문



에 그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재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아들러는 인간이 과거의 경험에 얽매어 있다는 원인론적, 결정론적 이론과는 다른 관점을 보여 주었다. 경험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경험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니게 되는 목적이란 면서 목적론적, 비결정론적 이론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인간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특히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연대, 공동체 의식, 개인의 용기와 노력이 결합함으로써 미래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아들러는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극복할 용기를 가지면 변모할 수 있다고 설파한 것이다.

\* 신경증: 심리적 원인에 의하여 정신 증상이나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병.

\* 보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식할 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

9002-0054

##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차이점을 위주로 다른 이론과 비교하며 중심 화제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문제를 제기한 후 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③ 두 개념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한 후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여러 유사한 개념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하나의 이론 아래 통합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9002-0055

## 0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들러는 열등감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진 예로 뛰어난 업적을 들었다.
- ②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 형성에 사회적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보았다.
- ③ 아들러는 인간의 성격 형성에 본능적인 욕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④ 프로이트는 신경증의 원인으로 자아의 욕구나 성격 경향보다 성 충동을 중시했다.
- ⑤ 아들러는 자신의 학설을 모든 인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다 프로이트와 거리가 생겼다.



9002-0056

### 03 '열등감'에 대한 아들러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갓 태어난 아기는 아직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생긴다.
- ③ 인간은 누구나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다.
- ④ 인간을 움직이는 최대의 동기는 병적 상태를 지칭하는 열등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이다.
- ⑤ 열등감은 그것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가 구체화되는 것을 돕는다.

9002-0057

### 04 <보기>에 대해 프로이트와 아들러가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심리학 분야에서 트라우마(trauma)는 '정신적 외상', '(영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A는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성인이 된 후에도 물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한다. 이런 경우, A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공포감을 극복하지 못하여, 즉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도 물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 ① 프로이트는 A의 사례가 인간의 삶에 대한 목적론적, 비결정론적인 시각의 타당한 근거라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아들러는 A의 사례를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원인론적이며 결정론적인 시각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 ③ 아들러는 A의 현재 모습을 규정하는 것은 트라우마를 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A가 갖고 있는 목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④ 아들러는 A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용기를 가지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⑤ 프로이트는 A의 사례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이 원인이 되어 현재의 모습이 규정된다는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증거라고 주장할 것이다.